

협회소식

당정,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로 결정

우리 양돈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UR대책으로 10여년간 줄기차게 건의해온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지난 12월 17일과 21일 당정간 합의, 결정되어 제반절차가 이루어지는 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본회 등 축산관련 단체는 그동안 부가세 영세율 적

용을 위해 관계요로에 탄원서 제출, 진정서 제출, 공청회 개최, 서명운동, 헌법소원 제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왔으며, 지난 12월 10일에도 민자당, 민주당과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었다.

아울러 본회는 축산지원자금의 금리인하와 축산분뇨시설의 보조사업 확대 문제를 계속 절충중에 있다.

본회 긴급 대의원총회 개최



본회는 지난 12월 8일 본회 회의실에서 긴급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쌀 수입개방과 UR협상타결에 대한 본회의 공식입장 표명 등의 문제에 대해 협의 했다.

이 자리에서 본회 전동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쌀 수입 불가라는 입장을 밝히다가 돌연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식의 기만적 행동

으로 농민을 우롱했다”고 말하고 “'95년부터 모든 형태의 돼지고기 수입이 개방되게 되었으며 그렇게 되면 국내 양돈업의 존폐여부마저 불확실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양돈인들이 수입개방 이후의 대책수립에 대하여 다소 나태했던 점도 있었던 게 사실이나 지금부터는 더욱 결속해서 활로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영한 전무는 지금까지의 UR협상 경과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쌀은 10년간의 관세화 유예기간을 두고 최소시장 접근방식으로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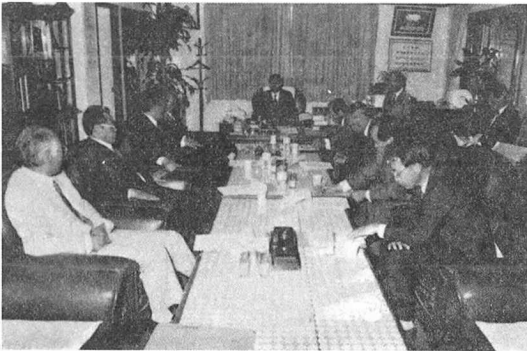
이에 대의원들은 유관단체와 공동으로 본회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향후 공식행동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은 회장단에 맡기기로 했다.

한편 대의원들은 내년도 회비와 자조금을 올해 수준

으로 유지키로 한 '94년도 회비 및 자조금 부과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본회, 현안비상대책협의회 개최

— 생산비 절감 위해 모든 노력 경주키로 결정



본회는 지난 12월 17일 각 도협의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임원실에서 현안비상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UR협상에서 정부가 쌀개방 문제만 부각시킨 나머지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등을 크게 양보한 것은 1백만 양축농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성토했고 12월 8일 긴급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축산관련단체와 공동 쉼기대회 결정위임을 논의,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축협과 연계하여 쉼기대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최근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는 농민쉼기대회에 각 도협의회와 지부들이 동참하고 있으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돼지고기 시장이 어차피 개방된 만큼 우리 양돈업계에 가장 큰 피해를 안겨 줄 미국산 돼지고기의 국내 도착가격을 99,800원(90kg기준, 관세 25% : 17,800원, 수송비 15% : 10,700원)으로 추정할 경우 국내 돈육생산비가 10만원 이하가 되어야만 경쟁력

을 갖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돼지 농장검정 본회로 일원화

— 농림수산부, 검정효율 극대화 위해

돼지 농장검정 실시기관이 본회로 일원화됐다.

농림수산부는 양돈농가들의 검정기관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고 검정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동안 본회와 종축개발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해 오던 돼지농장검정을 본회에서만 실시토록 조치했다.

본회는 농장검정이 일원화됨에 따라 앞으로 생돈에서 전자파에 의한 체부위의 단층촬영으로 등심 단면적 또는 정육율을 추정해 살고기 생산량이 높은 개체를 정확히 선별하는 것은 물론 농장간 성적을 동일 조건 하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장소와 보정에 의거, 육종가를 기반으로 한 선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본회, 축산농민 생존을 위한 UR대책 건의서 제출

본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12월 10일 축산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을 요구하는 「축산농민 생존을 위한 UR대책 건의서」를 김영삼 민자당 총재, 이기택 민주당 대표, 허신행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제출했다.

3개 단체는 건의서에서 축산농민의 숙원이며 '92년 대선공약이었던 축산원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해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사료, 동물약품 등 축산원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업계발전을 위해 정착되어 있는 자조금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조속히 입법, 제도화되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또 축산농민에게 지원되는 각종 자금의

금리와 상환기간이 외국에 비해 매우 불리하고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의 완화를 촉구했으며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력증진과 토양보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축산물시장개방에 따른 피해에 대해 양축농가에 계도 베타배농가와 마찬가지로 보상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3개 단체는 이번 건의가 UR협상타결 기준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건의라고 말하고 이번의 건의사항이 조속히 반영되길 바라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00만 축산농민은 부득이 생업을 포기하게 되어 모든 부채를 생축으로 상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거리에 나가 국민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본회 전동용 회장, 세계축산학회 서울대회 자문위원으로 위촉



전동용 회장

본회 전동용 회장이 세계축산학회가 1998년 개최할 세계축산학회 제8회 서울대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지난 6월 캐나다 에드몬턴에서 제7회 대회를 개최한 세계축산학회는 제8회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기로 하고 현재 한국축산학회와 조직위원회를 구성,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는데 한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면서 본회 회장인 전동용 회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키로 한 것이다.

울산시지부 울산양돈영농조합 법인 설립



정대용 대표이사

본회 울산시지부(지부장: 정대용)가 지난 11월 24일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울산양돈영농조합법인은 총 14명의 조합원이 10,380와 1억 380만원의 자금을 출자하여 결실을 보게 되었으며 현재 돼지사육두수는 총 9,693두로 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692두이다.

앞으로 경영안정사업, 공동작업, 공동구매 및 공동출하,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농축기계 및 시설 대여, 농축산물 가공 판매, 사료생산 및 축분 공동처리, 종돈 생산 및 분양, 양돈농가 홍보·계도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될 울산양돈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는 본회 울산시지부장인 정대용 씨가 맡게 되었으며 사무실은 울산시지부와 공동사용키로 했다.

▲주소: 경남 울산군 웅촌면 곡천리 309-4

▲전화: (0522)68-9993

청주·청원지부 직판장 개설

청주·청원지부(지부장: 유인종)는 지난 12월 9일 청주시 가경동 형석 1차 아파트 정문 앞에 한우판매점을 개장하고 조동백 충북도축산계장을 비롯한 관내 축산관계관과 본회 김철수 충북도협의회장을 비롯한 본

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가졌다.

이날 개장한 직판장은 43.5평 규모로 정부로부터 2억원의 자금을 융자받아 마련되었으며 한우와 돼지고기, 닭고기를 부위별로 판매하고 있고 부산물과 일반 공산품도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시중 정육점보다 10~15% 정도 싸게 팔고 있다.

▲주소 : 충북 청주시 가경동 1214 형석 1차 아파트 정문 앞

▲전화 : (0431)274-6622

상주시부, 농업사수 위한 결의대회 가져



본회 상주시부(지부장 이정근)는 지난 17일 상주시 소재 구 중앙국민학교 공터에서 “쌀개방 반대 및 농업사수를 위한 상주농민 결의대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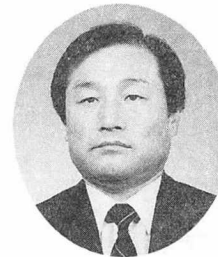
이날 결의대회는 본회 상주시부를 비롯한 상주낙우회, 농민후계자 상주시연합회, 상주시·군농민회가 공동주최했으며 상주시·군민과 농민,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결의대회는 식전행사로서 길놀이, 본행사, 시가행진 순으로 진행됐는데, 본회 상주 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쌀 및 축산물 개방은 농민에 대한 집단 살인행위”라고 규정하고 “우리 양돈인 및 농민은 모든 수단을 동

원해 투쟁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구를 비롯해 돼지운반차를 필두로 한 시위대는 시가행진 도중 시청앞을 통과하면서 수입개방후의 대책수립을 요구하면서 시청진입을 시도해 진압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김충세 제주지부장 신한국인으로 선정



김충세 지부장

김충세 제주지부장이 신한국인으로 선정됐다.

김충세 지부장은 함께 신한국인으로 선정된 60여명과 같이 지난 12월 13일 청와대로 초청되어 김영삼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을 나눴다.

김충세 지부장은 양돈사양기술과 종돈개량 향상에 앞장서고 최초로 발효퇴비기를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한편, 돼지인공수정센터를 설립하여 우수유전자를 보급하는 등 양돈산업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다.

김충세 지부장은 지난 9월부터 제주지부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대흥리에서 2천5백두 규모의 충세종축을 경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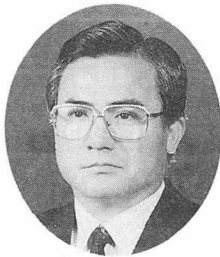
본회, '94년도 업무용 수첩 및 카렌다 제작·배부

본회는 회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양돈경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94년도 업무용 수첩(양돈수첩)과 카렌다를 제작, 각 도협의회와 지부에 배부했

다.

새로 제작된 '94년도 업무용 수첩에는 본회 현황, 협회 관리기구표, 임원현황, 도협의회 및 지부현황, 정부 및 시·도청 주소록, 업계 및 단체 주소록, 주요 종돈장 및 도매시장 주소록, 국내 및 세계 양돈현황, 돼지 생산비 및 사육비, 양돈경영 관리지표, 양돈관련 참고자료 등 양돈경영에 필요한 각종자료 및 전국지도, 우편번호, 주요전화번호 안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료도 수록되어 있다.

서남지부, 남원양돈영농조합법인 설립



오정남 대표이사

본회 서남지부(지부장 : 오정남)가 양돈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

서남지부는 오정남 제주도협의회장을 비롯한 7명의 회원이 총 1,400만원을 출자하여 지난 10월 23일 남원양돈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양돈경영의 합리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키로 했다.

남원양돈영농조합법인은 내년의 냉장돈육 수입개방에 대비해 축산원자재의 공동구매와 축산물의 공동판매, 공동경영사업을 추진하고 유통사업과 육가공업에의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동조합법인의 대표이사는 오정남 제주도협의회장이 맡게 되었으며 사무실은 서남지부와 공동사용키로 했다.

▲주소 :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292-19

▲전화 : (064)63-0469

함양지부 사무실 이전

함양지부(지부장 : 하영국)는 지난 11월 22일 지부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사무실을 아래 주소로 이전했다.

▲주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627

▲전화 : (0597)63-6565

협회단신

제1검정소 직원 채용



김재형 기사

본회 제1종돈능력검정소(소장 : 정숙근)는 지난 11월 11일 검정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김재형 씨(26세)를 새로 채용했다.

김재형 기사는 '86년 신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왕축산과 경기양돈 등에서 근무했었다.

용인지부 여직원 채용

용인지부(지부장 : 김덕우)는 최근 업무활성화를 위해 홍윤정 양(24세)을 채용했다.

홍 양은 동우대학을 졸업했다.

양평지부 여직원 채용

양평지부(지부장 : 박노영)는 최근 지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양평공업고등학교 졸업예정인 허민옥 양(18세)을 새로 채용했다.